

『얼간이 윌슨』의 상황 재구성

김 재 신
(건양대학교)

Kim, Jae Shin. "Reframing in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2 (2020): 23-46. This paper suggests that Mark Twain reframes all the situations and accidents in *Pudd'nhead Wilson*. By reframing, Mark Twain helps his characters view and experience events, ideas, and concepts to find more positive alternatives. In the beginning, Wilson makes an absurd joke and becomes Pudd'nhead in Dawson's Landing, an insular city where he is supposedly the smartest man. The disgraceful name buys him some time to study about fingerprints. The study contributed to him to find the actual criminal and regain his good reputation. Mark Twain visualizes all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other characters while demonstrating ironical personalities so that his work keeps coherence. He adopts technically extraordinary twins, impostors, changelings, and characters with double vision and inherent and genteel values to show duality in human beings. Therefore, those ironical characters have been often considered incoherent; so was Mark Twain. However, similar to a person with the point of views of passengers and a cub pilot in his life on the Mississippi, Twain sees the world of Dawson's Landing in his characters' ambivalent eyes so that he can create a positive image of the world. The infamous slavery system saves Tom Driscoll's life despite his criminal offense. Moreover, the ironies from *Pudd'nhead Wilson's* Calendar at the beginning of each chapter is suitable for his cognitive reframing of the situation and contents in *Pudd'nhead Wilson*. (Konyang University)

Key Words: reframing, pudd'nhead, impostor, changelings, double vision, ironies

I. 들어가며

솔로몬 왕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어머니에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
지라는 명판결로 친어머니를 가려냈다. 한 생명체를 반으로 나누라는 말이 다른

상황에서도 과연 좋은 판결일까? 이는 상황 ‘재구성’(reframing)의 일종으로 생명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솔로몬 재판의 경우에는 좋은 판단이었지만, 일상 상황에서는 살인 판결이 될 수 있다. 전쟁에서 살인은 공적이 되지만, 일반 상황에서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마치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누드 해변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세상을 재구성하는데 탁월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긍정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남달랐다. 그의 『얼간이 윌슨』(*Pudd'nhead Wilson*)의 서두에서 ‘개의 반토막’(half of that dog) 일화로 주인공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은 새로 정착하려던 도슨스랜딩(Dawson's Landing)에서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얼간이’(pudd'nhead)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으로 격리되어 본업인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유형의 말은 그곳 현지인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저 흔한 농담이었을 뿐이었을 것이다.(Cox 234)

“저 개의 절반이 제 소유면 좋을 텐데요.”

“왜요?” 누군가가 물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절반을 죽일 테니까요.” (17)

‘I wish I owned half of that dog.’

‘Why? somebody asked.

‘Because I would kill my half.’ (59)

마을 사람들은 윌슨을 새로운 시각의 틀로 바라보게 되고, 오랫동안 그는 얼간이 취급을 받는다. 한편 윌슨도 처음 가졌던 도슨스랜딩에 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도슨스랜딩을 바라보게 된다. 윌슨은 사회로부터 배척되어 격리됨으로 본업인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의 아이러니 책력 집필과 지문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애초에 “정신적 시력은 아이러니에 초점을 맞춰 이해할 줄 몰랐다”(59) ([T]heir mental vision was not focused for [irony]. 86)라고 평가받던 마을 사람들은 윌슨을 보는 시각의 틀을 바꾸어 스스로 얼간

이라고 부르는 반전이 생긴다. 그는 애초의 우연한 사건으로 도슨스랜딩이 가진 모순적인 문화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훗날 사건 해결로 마을 사람들의 시각의 틀이 바뀌면서 그가 새로운 영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일화는 도슨스랜딩의 주민들이 윌슨의 아이러니를 윌슨에게는 “장난스러운 소품”(those playful trifles)을 “아주 건실한 진지함으로”(in the solidest earnest) 이해하는 다른 시각의 틀을 보여준다.(59)

그 와중에 같은 시기에 태어난 두 주인공 톰(Thomas a Becket Driscoll)과 채임버스(Valet de Chambers)의 역할이 바뀌어 다른 사람의 틀에서 생활하고 이어 다른 틀의 삶을 살던 톰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지문이 단서가 되어 범인과 바뀐 사람을 찾아낸다. 역할바꾸기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희극에서 자주 사용했으며 특히 남장한 여성이 자주 사용되었다. 여기에 살인사건의 해결을 다룬 법정 이야기와 탐정 소설적인 구성이 가미되어 더욱 사건을 꼬이게 만드는 양상을 보인다. 태생적 본성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자연주의 인간관으로 이 작품의 인종적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었으나 이 작품의 복잡한 구성으로 인하여 인종의 문제는 독자의 관심 밖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상반된 평가가 발생했던 요인은 트웨인이 소설 속 상황을 다른 시각의 틀로 보고자 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마무리 장면에서 살인범 톰은 처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노예라는 재산적 가치로 인하여 방면되어 남부로 팔려간다는 반전을 만들어 낸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작가는 『얼간이 윌슨』에서 두 닮은 인물의 역할 바꾸기와 남성이 여성으로 위장하는 희극적 요소와 살인이라는 비극적 요소를 뒤섞어 놓았다.

이런 반전은 트웨인의 다양한 시각의 틀로 세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재구성하기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가장 좋은 감정의 상태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의미를 바꾸어 준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가치하고 목적이 없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행동은 특정 상황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재구성’이 있으며, 경험하는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여 부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반응이라도 긍

정적인 의도나 의미를 찾아내는 ‘내용재구성’이 있다. 따라서 트웨인이 『얼간이 윌슨』의 주인공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상황재구성과 내용재구성을 통해 이중적, 복합적 인물을 창조하고 사건의 반전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작품 재구성

『얼간이 윌슨』은 처음 출판부터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시작했으며 트웨인의 변화무쌍한 재구조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트웨인이 1891년 한 전람회에서 보았던 이탈리아계 쌍둥이 토치(Tocci) 형제를 보고, 태국의 ‘삼쌍둥이’¹ 관련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얼간이 윌슨과 놀라운 쌍둥이들』(*Pudd'nhead Wilson and Those Extraordinary Twins*)이란 제목으로 작품을 기획하였다. 약 2년의 집필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말로 ‘문학적 제왕절개 수술’(literary Caesarean operation)(Twain 230)을 거쳐 1893년 12월부터 1894년 6월까지 『센추리』(*The Century*)지에 『얼간이 윌슨의 비극』(*The Tragedy of Pudd'nhead Wilson*)으로 연재되었다가 1894년 아메리칸 출판사(American Publishing Company)에서 책으로 『얼간이 윌슨』으로 출판하고, 나머지는 『놀라운 쌍둥이들의 희극』(*The Comedy of Those Extraordinary Twins*)으로 같은 출판사가 출판했다. 이 과정에서 얼간이 윌슨 이야기는 ‘소극’(a farce)에서 남북 전쟁 전인 1830~1850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역설적인 노예 이야기’(an ironical treatment of slavery)로 변화되었다.(Wigger 93)

원래 두 작품이 붙어 있을 때, 역할이 바뀐 톰이 자라면서 서출에 대한 울분에 아버지를 찾아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되고, 도둑질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마을의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범죄를 저지른다. 범인 색출과정에서 발자국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었으나, 트웨인이 1892년 11월 영국 출판업자인 채토(Chatto)

¹ Siamese twin: 1811년 태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쌍둥이 쌍으로 이들은 1829년 미국으로 이주, 서커스 단에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어떤 자매와 결혼도 했고 64세로 1874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사망했다.

와 윈더스(Windus)가 보낸 프란시스 갤톤(Sir Francis Galton)의 『지문』(*Finger Print*)이란 책을 읽고 사건 해결의 단서를 바꾸었다. 원래의 작품은 서로 혼재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성으로 인하여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놀라운 쌍둥이들의 희극』은 두 개의 독립적인 개체가 한 개의 몸에 있는 쌍둥이가 겪을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이라면, 『얼간이 월슨』은 톰과 체임버스가 다른 몸으로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고, 루이지(Luigi)와 안젤로(Angelo)는 한 몸 속에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앤더슨(Frderrick Anderson)은 『얼간이 월슨의 비극』은 “익살꾼이라기보다는 소설가의 작품”(the work of a novelist rather than of a ‘funny man’ 182)이라고 말한다. 트웨인의 과거 다른 작품들은 익살꾼의 시각의 틀로 쓰여졌다면, 이 작품은 소설가의 시각으로 서술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크 트웨인 상표에는 상당한 유머가 있지만, 이 작품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의 미시시피 강 주변 마을의 세심하게 채색된 삶의 모습이어서 작품의 주요 가치가 있다.

There is plenty of humour in it of the genuine Mark Twain brand, but it is as a carefully painted picture of life in a Mississippi town in the days of slavery that its chief merit lies. (Anderson 182)

트웨인은 애초에 자신의 작품을 희극적으로 만들려고 의도를 가졌지만, 분리와 정에서 희극적 요소보다는 진지함과 아이러니가 가득 찬 작품을 탄생시켰다.

트웨인은 『얼간이 월슨』의 여러 곳에서 달라진 시각, 즉 세상을 새로운 틀로 보고 있다. 과거 미시시피 강은 그의 미시시피 3부작에서 조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트웨인과 문명으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던 톰 소여(Tom Sawyer)과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이 찾는 도피처였다. 이들은 미시시피 강을 문명에서부터의 자유, 사회적 기준 질서와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곳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얼간이 월슨』에서 미시시피 강은 정반대로 구습에 휩싸여 노예를 구속하는 장소이자 유전적으로 인간 결정론을 실천하는 장소로 바뀌어 있다.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의 가치를 “실제로, 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practically, aesthetic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강의 저변에 “다른 인종 간의 출산, 노예제도, 인종차별”(miscegenation, slavery, and racism)의 소재가 중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깔려있다.(Rohman 250) 1860년대 서부로 간 트웨인에게 미시시피 강의 경제적 가치는 사라졌지만, 그에게 최고의 긍정적 기억으로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짐(Jim), 록새나(Roxana)와 같은 인물에 대한 문학적 영감을 제공했다. 로맨(Rohman)은 트웨인에게 최악의 기억으로는 남부로 팔려가는 노예제도와 같은 인종 문제 인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얼간이 월슨』도 미시시피 강 관련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웨인의 기억 속에 있는 인종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의 틀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난해한 풍자 작가”(an elusive satirist)의 것으로 작가의 관점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248) 미켈슨(Bruce Michelson)은 트웨인을 ‘난해하고, 애매하며, 불투명하다’(problematic, ambiguous, and opaque)고 보면서도 ‘무계획성’(anti-design)의 작가라고 볼 수 없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트웨인이 ‘영혼을 구속하는 일관성에 반대하는 것이 일관된 특질’(the rebellion against soul-confining consistency forms an eminently consistent quality....)이다. 그러나 ‘일관성을 거스르는 것은 저항성이라는 치명적인 일관성에 직면하게 된다’([to] resist consistencies means to face... the lethal consistency of one’s own resistance.)고 지적한다.(Michelson 4-5) 트웨인이 제반 상황과 문제를 보는 관점에 일관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거부가 그의 또 다른 성향임을 말하는 것이다.

인종 문제와 관련하여 『허클베리핀의 모험』의 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톰의 잘못된 습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트웨인이 이 작품을 집필할 때인 1984년은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출판되고 10년이 지났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곤란을 겪던 시기였다. 『얼간이 월슨』은 트웨인의 초기 작품들과는 달리 1890년대 유럽,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자연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동물성과 유전적 결정론이 작품 속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일부 평자들은 트웨인 후기 작품들에서 나타난 염세적 사고방식을 그의 개인적 불행과 자연주의 탓으로 보고 있다. 자연주의 문학이나 예술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강조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결핍을 찾으려 했으며 인간은 사회, 환경,

유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결정론을 반영했었다. 『얼간이 월슨』도 흑인들이 환경과 유전적인 지배를 받으며 자유의지를 표출할 기회가 박탈된 동물로 1/16의 흑인 피 소유자인 록새나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미시시피 강이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스(Moss)가 주장한 것처럼 트웨인은 이 작품을 사회적, 정치적 비판으로 볼만한 증거는 그의 서신이나 노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53)

『얼간이 월슨』의 또 다른 지리적, 시간적 배경으로 도슨스랜딩과 남북전쟁 전인데, 이 역시 다른 트웨인 작품의 노예제도가 있던 세인트 피터스버그(St. Petersburg)가 아니고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노예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쓰여진 것이다. 과거의 피터스버그는 개척지 같은 서부의 모습을 간직한 개방된 도시였던 반면, 도슨스랜딩은 피터스버그보다 훨씬 남부에 위치한 폐쇄적이고 노예제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다. 트웨인은 도슨스랜딩을 미시시피 강의 북쪽에 위치한 해너벌(Hannibal)이라고 생각하고 썼다고는 하지만, 실제 해너벌과는 전혀 다르게 재창조했다. 그곳에서 ‘버지니아 제일가문’(the First Families of Virginia)이라 지칭되는 백인 귀족의 집안에서 톰이 출생하고 동시에 백인 귀족과 자유노예 록새나 사이에 백인의 피부를 한 체임버스가 출생한다. 이런 곳에서 이들의 역할교환이 록새나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남북전쟁 전이지만 책이 실제 집필된 순간은 남북전쟁 후, 즉 노예가 해방된 상황이었다. 트웨인은 장소적, 시간적으로 다른 사고의 틀로 이 소설을 구성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대와 장소에서 상황을 자신만의 다른 틀로 조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III. 상황 재구성

『얼간이 월슨』의 주인공 역할바꾸기는 미국이 지닌 근본 사회적 아이러니인 노예제도가 가미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정과 공화정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미국에서 “유독 노예제가 번성한 현실은 그 모순과 시대착오성”을 가진 상황에서 역할바꾸기가 발생한 것이다.(김명환 36) 비록 이 작품의 배경은 노예해방 전에 있던 이야기지만 집필할 당시는 전후 재건

기로 와해된 남부의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인종분류가 일층 심화된 기간”(임진희 554)으로 노예해방이 선포되고 노예해방에 따른 사회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을 때였다. 결과적으로 『얼간이 월슨』에서 취급되고 있는 노예의 상황은 이미 노예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후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탓에 트웨인은 보다 질서정연하게 노예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그릴 수 있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그리려 한 것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달라진 시각의 틀로 역할 바꾸기를 통해 획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만은 아니라, 모든 실체와 상황을 재구성하여 감추어진 실체와 다른 역설적 의미를 갖도록 했다. 그 예로 톰이 살인을 했지만 노예로 가치를 인정받아 석방되어 노예로 팔리게 되어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에서 그 역설을 볼 수 있다.

누구나 ‘톰’이 백인이고 자유인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손해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값나가는 노예를 평생 가둬둔다는 것,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251)

Everybody granted that if ‘Tom’ were white and free it would be unquestionably right to punish him – it would be no loss to any body; but to shut up a valuable slave for life – that was quite another matter. (226)

사회적 정의는 당시 제도로 결정되는 것으로 톰은 살인자로 처벌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에 사회와 제도로 인하여 그의 죄는 소멸되고 처벌 대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톰은 사회와 제도의 피해자가 되고, 새로이 주지사가 된 월슨은 그 사회와 제도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여 그를 방면해 채권자였던 남부 지주에게 팔도록 한다. 애초에 톰은 노예제도의 잔혹함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에 의해 바꿔치기 당했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못된 습관으로 인해 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실용적 가치로 인하여 생명을 구하게 된다. 모스(Moss)는 “이 소설이 트웨인의 어린시절 미주리 주에서의 인종 문제를 대처하는 노력을 서술한 것이 아니다”(The novel does not show Twain’s efforts to come to terms with the issue of race in the Missouri of his childhood. 43-4)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시 노예제도 속 사회규범과 실용성 논쟁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과 실용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며 얼간이 윌슨에게서도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셴논(Edward Shannon)은 기독교적 관심으로 『얼간이 윌슨』의 주인공들이 기독교적 유형론(Christian Typology)에 입각하여 전형적 성서적 인물을 가꿈은 그대로, 가꿈은 변형시켜 창조되었으며, 전통적인 변장(옷 바꿔입기, 얼굴 검댕이 칠하기, 개명) 수법을 통해 때로는 이중적이며 다층적인 인물들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53) 가짜 톰이 남부사회의 위선과 가식으로 처형되었다면 그는 분명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슨스랜딩 사회는 처음 거부했던 얼간이 윌슨을 수용하듯이, 노예의 실용성으로 인하여 톰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 그는 노예제도의 희생자이면서 반어적으로 노예제도 때문에 구제된다. 그의 실용성은 바로 노예상인과 노예제도 속에서 필요성이지 노예제도가 없으면 그의 실용성도 없어지게 되어 처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의 운명도 모호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웨인의 주장도 그에 상응하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모호성 탓에 허셸 파커(Hershel Parker)는 이 소설은 형식이나 구조적 일관성 부족으로 “분명히 읽을 가치가 없는”(patently unreadable)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평자들은 『얼간이 윌슨』의 일관성 부족과 모순을 19세기 미국의 문화의 모순성에서 찾으려 하기도 하면서 내제되어 있는 통일적 구조를 보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Gilman vii) 일관성 부족은 주인공의 실체나 사고가 통일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트웨인의 사고의 틀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트웨인이 이렇듯 이중적, 더 나아가 다층적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 내는 글을 서술한 것은 그가 서로 다른 상황을 서로 다른 시각의 틀로 조망하려고 하는 내재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 정의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인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현실의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유보시키는 초연함에 기인하고 있다.

윌슨은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복부의 가치를 가지고 남부 도슨스랜딩에 왔지만, 그 사회는 그를 거부하고 그의 본명 대신에 ‘얼간이’라는 별명을 주고만다. 한편 이런 배타적 상황에서도 윌슨은 지역사회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의 유지들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여 결국은 시장으로

선출되고 사건의 해결로 명성을 회복한다. 이 역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려는 트웨인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트웨인은 이런 복합적이면서 양면적인 환경에 처한 톰의 이야기의 제목을 역설적으로 『얼간이 월슨』이라 하고, 마치 월슨이 주인공이 되어 지문확인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추리소설처럼 독자를 유도한다. 작품 제목의 영향으로 제임스 콕스(James M. Cox)는 어떤 주인공보다 월슨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고상하면서 기존의 사회에 반기를 들지 않고 적응하면서 낭만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로 혁파는 상대적인 인물이고 성장한 톰 소녀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240)

월슨은 처음부터 남부사회의 가치나 제도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들어내지 않고, 그냥 남부에 정착하여 그곳의 정서에 동감하면서 버지니아 제일가문과 친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 그렇다고 월슨이 남부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처음 경이로운 대상이었으며 남부귀족의 자제로 재탄생한 톰과 불편한 관계를 촉발한 이탈리아 출신 한 몸 일체 쌍둥이가 살인자로 오해받을 때 그를 변호하는 것으로 보아 월슨을 남부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의 시각의 틀은 시시각각 바뀌고 노예제도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도 하지 않는다.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독자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어 그를 일관된 사고의 틀을 가진 주인공으로 볼 수가 없다. 그가 처음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훗날 긍정적으로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문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그의 명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물로 상황재구성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웨인은 『얼간이 월슨』에서 전통적인 ‘역할교환’과 ‘사칭’(imposture)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소재를 재가공하여 상대의 위치에서 세상을 새로운 사고의 틀로 조망하고 있다. 다른 트웨인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간이 월슨』에도 ‘사칭한 인물’(impostor)이 등장하는데 흑인과 백인 아이가 조금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연히 동시에 출생하게 되고 흑인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미래를 걱정해 둘을 바꾼다. 맬콤 브래드베리(Malcolm Bradbury)는 이를 ‘전통 희극의 진부한 인물’(the stock of traditional literary comedy)이라고 지적한다.

요람에서 바뀌치기 당하는 상류층 아이와 하류층 아이에 관한 과거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는 유럽 희극 전통의 주된 주제였다. 희극성은 견고하고 계급적 사회체제에서 바뀐 두 아이가 인식하고 있던 모르든 역할 바꾸기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사칭으로 야기된 혼돈에서 비롯된다. 희극적 복귀는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 실정의 기간을 종식하게 된다. 두 번째 기본 주제는 쌍둥이 이야기인데 이들은 신분을 바꾸거나 상대로 오인되는 것이고, 역시 사칭할 기회가 생기고 상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 희극적 결과는 역시 제 신분과 질서의 회복이지만, 주제는 사회적 혼돈보다는 도덕적 혼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The old prince and pauper story about two infants, one of high and one of low birth, who are exchanged in the cradle, is staple of the European comic tradition. The comedy derives from the confusion caused to a stable, hierarchical social system by the change of roles and the consequent imposture, whether known or unknown to the two children as imposture. The comic restitution is to end the period of misrule with a restoration of rightful rank to the children. The second basic theme is that of twins who have exchanged identities or are confused with one another; again the opportunities for imposture are taken and each is usually held responsible for the other's actions. This time the theme produces moral rather than social confusion, though again the comic resolution is that of the recognition of rightful identity and the restitution of order. (22-23)

전통적으로 역할교환이든 쌍둥이든 결과는 바뀐 인물들이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브래드베리가 지적한 두 가지 ‘사칭 주제’(imposture theme)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하나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사람들의 역할이 바뀌고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비판을 하거나 환경을 탓을 하고, 다른 하나는 서로가 바뀌든 혼선이 빚어졌든 상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혼란을 강조한다. 결국 차이는 사회 비판적 요소가 있는가,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이다. 모스가 주장했듯이 트웨인은 사회적,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트웨인이 보여준 차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름에 보완적 역할’(complementarity of otherness)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트웨인의 심리적 경향과 예술적 역할이 가진 다면적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트웨인도 이런 고전적, 정형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작중 인물들의 역할을 바꾸고 있는데 특히 『왕자와 거지』(*The Prince and the Pauper*)는 역할이 바뀌는 주인공은 도덕적 혼란을 전혀 만들어 내지 않으며, 『얼간이 월슨』에서 역할이 바뀌는 주인공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혼란을 야기시킨다. 전자의 작품에서 왕자와 거지인 에드워드(Edward)와 톰(Tom Canty)이나 후자의 작품의 톰과 체임버스는 전혀 다른 계급에 속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전자의 작품에서 에드워드와 톰은 유사한 성격과 도덕성을 지녔지만, 후자의 경우 톰과 체임버스는 다른 성격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출생 후 전혀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톰’은 찬탈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못된 아기였다. 그는 이유 없이 울곤 했다. 사전 경고도 없이 못된 성질을 한바탕 터뜨리곤 했으며, 비명을 계속해서 지르고 소동을 거꾸 벌였다.... 아기 톰은 자기 손톱이 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퀴고, 자기 딸랑이로 닿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들겨댔다. (44)

‘Tom’ was a bad boy, from the beginning of his usurpation. He would cry for nothing; he would burst into storm of devilish temper without notice, and let go scream after scream of squall after squall ... The baby Tom would claw anybody who came within reach of his nails, and pound anybody he could reach within his rattle. (75)

톰은 태어나며 악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지다가 자리바꿈을 한 후 교육을 통해서도 바꾸어 지지 않는다. 예일대학에서 2년간의 교육 후 그는 예의나 태도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록새나가 말하는 흑인들의 속성인 비겁함, 폭음과 도박의 습관은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흔적”(Smith 180)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성격의 문제로 발생한 곤란한 문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은 살인이라는 범죄로 귀결된다.

톰과 체임버스가 두 개의 몸으로 서로 다른 시각의 틀로 세상을 본다면, 루이지와 안젤로, 월슨, 록새나는 하나의 몸에 두 가지 시각의 틀로 세상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제일가문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은 집단적 두 개체로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트웨인은 다른 작품에서도 ‘쌍둥이’, ‘의도적 사칭’(intentional imposture), ‘우연히 혼돈된 신분’(accidentally confused identities)과 같은 소재를 특이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다.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와 거지는 거의 같은 모습의 쌍둥이이고, 『톰 소녀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톰과 헉은 상반된 쌍둥이이고, 『얼간이 월슨』에서 이탈리아인 루이지와 안젤로는 실제 몸이 붙은 쌍둥이이며, 톰과 체임버스도 상반된 쌍둥이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왕과 공작은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기행각을 하고 있고, 『코네티컷 양키』에서 아더 왕은 의도적으로 평민 의상을 입고 시정을 살핀다. 『얼간이 월슨』에서 월슨은 ‘개의 반토막’을 언급해 말로 자신의 실체가 전혀 다르게 변화하고, 록새나는 1/16의 피로, 그녀의 흑인 어투로, 그리고 당시 법과 관습으로 자신의 실체를 바꾸고, 파괴하고 창조한다. 그리고 톰은 처음엔 젊은 여성으로 나중에는 나이든 여성으로 변장하고, 록새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 쌍둥이, 닮은 인물, 변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바꾸는 시각의 틀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다. 쌍둥이의 역할교환이나 한 인물의 두 가지 생각들, 그리고 옷을 통한 변장이 그들의 신분, 인종, 심지어 성을 바꾸고, 기존의 실체를 파괴하고, 새로이 창조하여 이중적 시각 심지어 다층적 시각을 가진 인물을 만들어 낸다.

트웨인은 남부 귀족의 관습이었던 결투를 두 가지 시각의 틀로 바라본다. 버지니아 제일가문 사람들과 결투를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었다. 명예를 지켜야 사람이 결투를 피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것을 흑인인 록새나,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한 월슨, 이탈리아의 이방인 쌍둥이의 입을 통해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부사회에서 가장 무모했던 행위가 결투임을 짐짓 진지한 어조로 지적한다. 결투를 피하는 톰의 비겁함을 록새나의 입으로 비난하고 무작정 결투를 신성하는 무모함은 월슨의 입을 통해 지적한다.

결투의 기회에 기꺼이 응하는 대신에 너를 걷어찬 사람과 싸우기를 거절했다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한단 말이나. 친한 밑바닥 겁쟁이를 낳은 불쌍한 나에게! 이런! 욕지기가 난다! 네 안에 있는 감동이 때문이야! 네 삼십이분의 삼십일은 백인이고, 단지 한부분만이 감동이인데, 그 딱하고 미천한 한부분이 너의 [온 마음]이구나....(156-7)

'Eb you refuse' to fight a man dat kicked you, 'stid o' jumpin' at de chance! En you ain't to got no mo' feelin' den to come en tell me, dat fetched sich a po' low-down ornery rabbit into de worl'! Pah! it make me sick! It's de nigger in you, dat's what it is. Thirty-one parts o' you is white, en on'y one part nigger, en dat po' little one part is yo' soul.' (157)

록새나는 남부귀족의 틀로 사회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의지가 없다. 한편 윌슨은 애초 남부사회에 편입되고자 원했지만, 도슨스탠딩 주민들이 그를 수용하지 않고 열간이라는 별명을 붙여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도슨스탠딩의 치안판사가 그에게 시장 출마를 제안했고, 윌슨은 이를 수락하면서 “마을의 삶과 활동에 데뷔”(his debut into the town's life and activities)했고 “한계단 위로 올라서는 것이었고, 윌슨은 깊이 만족했다”(it was a step upward, and he was deeply gratified)고 하며 본격적으로 남부사회의 생각의 틀을 답습하게 된다.(151) 그렇지만 내면의 생각은 결투에 대한 그의 생각의 틀임을 그의 캘린더를 통해 보여준다.

용기는 공포에 대한 저항, 공포의 정복이지, 공포의 부재가 결코 아니다.... 공포에 대한 무지가 용기라면, 벼룩은 신의 피조물 중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 가장 용감한 존재이다.... 우리가 클라이브, 넬슨, 퍼트넘을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때, 항상 벼룩을 추가해야 하고, 그 행렬 맨 앞에 세워야 한다. (130)

Courage is resistance to fear, mastery of fear – not absence of fear.... When we speak of Clive, Nelson, and Putnam as men who ‘didn't know what fear was’, we ought always to add the flea – and put him at the head of the procession. (138)

남부귀족의 사고의 틀로 볼 때 톰이 ‘개’로 취급받듯이, 윌슨의 사고의 틀로 본 남부귀족의 용기는 ‘이’의 용기에 비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트웨인은 남부의 위선을 경멸했으며 특히 결투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남부 제일가문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직접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윌슨은 이 결투의 정당성

을 대변하고 실제 그 심판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쌍둥이에게 견어차이고 결투를 신청하지 않아 숙부가 상속권을 박탈하고 이에 위안을 얻으려고 그를 찾아온 톰을 나무라는 얼간이는 남부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숙부님이 너더러 이탈리아인과 싸우라고 하셨고 넌 거절했다는 게지. 명예로운 가계의 타락한 유물이라니! 난 참으로 네가 부끄럽다. 톰!” (142)

‘Well, he has been requiring you to fight the Italian and you have refused. You degenerate remnant of an honourable line! I’m thoroughly ashamed of you, Tom!’ (146)

톰이 윌슨을 방문해 얻으려 했던 바는 반 남부 귀족의 정서를 윌슨이 동의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만, 윌슨은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그의 생각에 톰은 생각은 남부도 북부도 아닌 저만의 세상에 대한 시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악운은 내게 오고 모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가네.... 그래, 그는 자신의 길을 열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길을 막아야만 했어. 추악하고 이기적인 세상이고,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154)

All the hard luck come to me, and all the good luck goes to other people—Pudd’nhead Wilson.... Yes, he has opened his own road, but he isn’t content with that, but must block mine. (155)

톰은 같은 상황을 윌슨에게는 행운으로 적용되고 자신에게는 불행으로 재해석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톰이 가진 사고의 틀이다. 같은 상황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실제 『얼간이 윌슨』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도 트웨인의 다면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칭한 인물로 등장하는 가짜 톰과 체임버스 이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칭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바로 가짜 톰의 생모인 록새나이고 그의 태도는 양면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외양은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1/16의 흑인 피로 인하여 흑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말로는 백인을 대변하고, 행동으로는 흑인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다면적 성향의 록새나는 작가 트웨인과 같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록새나의 말이 곧 트웨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진 다면적 시각은 바로 트웨인의 시각과 같다. 록새나는 실생활에서는 통속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고 고상한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증기선에서 8년간 객실 하녀 경험과 백인의 정부로 톱을 잉태하게 된 기구한 삶으로 록새나는 결단력이 있으며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가치관은 버지니아 제일가문의 드리스컬 판사와 남부에 대한 맹목적인 존중과 실제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녀는 아들의 아버지인 쉘실 벌리 에섹스(Cecil Burleigh Essex) 대령의 가문임을 자랑스러워 한다.

“내 5대조 할아버지이자 너의 6대조 할아버지는 옛 버지니아가 낳은 가장 훌륭한 혈통인 존 스미스 대위였다. 게다가 그의 3대조 할머니 혹은 그 이상의 조상 중에는 인디언 여왕이었던 포카혼타스가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아프리카에서 온 깜둥이 왕이었어. 그런데 넌 여기서 결투를 피해 꼬리를 내리고 비루먹은 잡종 개처럼 우리 혈통 전체를 더럽히다니! 그래 네 속의 깜둥이가 문제야.” (157)

My great-great-great-great-gran'father was ole Cap'n John Smith, de highest blood dat Ole Virginy ever turned out, en his great-great-gran'mother, or somers along back dah, was Pocahontas de Injun queen, en her husbun' was a nigger king outen Africa—en yit here you is, a slinkin' outen a duel en disgracin' our whole line like a ornery low-down hound! Yes, it's de nigger in you! (158)

그녀는 자신의 다민족 유산의 상속자란 점에 강한 자부심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예들의 줌도독질을 그동안 인종편견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사소한 도둑질로 말미암아 자신에게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자신의 자유—을 매일매일 강탈하는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 날에 하느님이 기억할 만

한 그 어떤 죄도 짓는 게 아니라고 완벽하게 확신했던 것이다. (30)

[T]he negro prowler... perfectly sure that in taking this trifle from the man who daily robbed him of an inestimable treasure—his liberty—he was not committing any sin that God would remember against him in the Last Great Day. (67-8)

이는 록새나가 백인들이 흑인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아이를 주인집 아이와 바꾸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그간의 부당한 대접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보상을 뛰어넘어 보복의 쾌감까지 느끼고 있다.

행복하고 자부심이 차올랐다. 왜냐하면 톰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깡둥이 아들이었고, 백인들 사이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범죄를 은밀히 복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54)

[S]he was happy; happy and proud, for this was her son, her nigger son, lording it among the whites and securely avenging their crimes against her race. (82)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심리에도 불구하고 록새나는 남부의 사회질서를 수용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톰을 “이백년에 걸쳐 보상받지 못한 모욕과 불법의 상속자”(90) (the heir of two centuries of unatoned insult and outrage 109)이며 자신은 “재산, 편리한 물건, 개,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는 무력한 노예”(52) (his chattel, now, his convenience, his dog, his cringing and helpless slave 81)라고 중얼거리듯 노예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도 있다. 아들 톰을 나무라며 “네 속의 깡둥이가 문제야!”(157)이라고 흑인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조상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은 남부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이지만, 바로 이런 아이러니는 바로 록새나의 다면적 사회인식과 사고를 재구성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노예제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백인사회의 대변자인

양 하면서도 아들의 장래를 위해 백인의 아들과 바꾸어 놓는다. 또한 결투를 피하는 아들의 태도에 대한 그녀의 비난 속에서도 귀족사회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말을 한다. 이런 태도는 바로 ‘남부가치의 대변자’(a mirror of Southern value)라고 간주할 수 있다. 켈리스(Chellis)는 그녀의 태도가 기회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00) 켈리스는 록새나의 양면적인 모습에 현실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부 귀족의 가치를 대변하여 아들의 비겁함을 나무라면서도 자식의 장래를 바꾸기 위해 우연히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를 자리를 바꾸는 록새나는 어떤 확고한 가치관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녀는 말과는 달리 남부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귀족의 피를 타고난 체임버스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남부에서 가지고 있던 비인간적인 고정관념이 흑인은 열등한 인종이고 백인은 우수하다는 논리도 부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트웨인은 록새나의 입을 통해 일부 노예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남부를 비난하면서 록새나의 시각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남부의 가식과 허세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그들이 지닌 불굴의 용기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톰이 결투를 회피하는 비겁함을 비난하면서도 그가 처한 상황에 동정을 보이는 트웨인의 관점과 표현에서 보이는 이중적인 사고와 일치한다.

록새나는 육체적으로 한 몸에 흑과 백의 피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고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쪽 사회의 악을 비난하면서도 역설적으로는 두 사회에 동정을 보내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열간이 월슨』의 진정한 주인공은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 톰이나 체임버스, 쌍둥이가 아닌 제목에 나타난 월슨과 다면적 성격을 지닌 록새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양면적인 시각으로 사회와 인물을 판정하는 것이 트웨인이 그의 작품에서 일관성 있게 가진 태도인 동시에 그의 많은 소설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다. 비록 톰, 체임버스, 쌍둥이는 서로의 역할을 바꾸거나 한 몸에 양면적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은 월슨과 록새나의 상황 재구조화의 과정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는 피셔(Marvin Fisher)가 주장하는 ‘절반의 개’(half a dog)의 문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개는 ‘인간의 가장 저속한 본성’(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for ‘man’)을 암시하고 있으며, 월슨은 이런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저 개의 절반이 제 소유면 좋을 텐데요.... 왜나하

면 제가 가진 절반을 죽일 테니까요”라고 말하여 감추어진 인간의 악마성의 절반을 처치하겠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인간의 양면적 모습이 록새나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트웨인의 어떤 주인공도 이런 양면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전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월슨의 말에서 ‘절반의 개’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절반을 죽이겠다는 것처럼 인간성의 양면성의 일부인 악마성을 분리시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어적으로 트웨인은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속성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트웨인은 『얼간이 월슨』을 통해 새로운 배경과 분위기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소재인 역할 바꾸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양면적 시각을 표출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트웨인이 다른 작품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양면적 시각이라는 점에서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얼간이 월슨』에서 주인공이 누구였던 월슨의 양면적인 모습과 톱과 체임버스의 역할교환이나 록새나의 이중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주인공에서 공통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양면성을 띤 위선이다. 가짜 톱은 우화에서처럼 이차원적인 절대 선과 절대 악, 그리고 전통적인 성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성격은 록새나에 의해 역할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복잡성을 가지게 되고, 록새나 자신도 그 양면적인 본성을 지니게 되면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인간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트웨인은 상황재구조화 기법을 통해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작중인물들이 가진 세상을 보는 틀을 보여주어 독자로 하여금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보듯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희비극이 뒤섞인 작품으로 트웨인이 가진 유머가 조금은 어렵게 채색하여 표현하고 있다. 트웨인은 그의 얼간이 월슨의 책력에서 새로운 사고의 틀로 세상을 볼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10월 12일, 발견.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욱 경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얼간이 월슨의 책력』, 248)

October 12. -The Discovery. - It was wonderful to find America, but it would have been more wonderful to miss it. - *Pudd'nhead Wilson's*

Calendar (224)

얼간이의 책력은 드리스컬 판사에 의해 마을 유지에게 소개되었지만, 우매하고 군중심리에 이끌리는 군중은 그의 아이러니를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가 통하는 이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정신적 시력은 아이러니에 초점을 맞춰 이해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 장난스러운 소품들을 아주 견실한 진지함으로 읽었으며 데이브 윌슨이 얼간이라는 데 대해 행여 의혹이 있었다면—실은 전혀 없었다—이 경구들이 그 의혹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고 주저 없이 결론을 내렸다... 얼간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어디서나 환영받았지만, 그저 아무런 비중 없는 사람이었다. (59-60)

But irony was not for those people; their mental vision was not focused for it. They read those playful trifles in the solidest earnest, and decided without hesitancy that if there had ever been any doubt tht Dave Wilson was a pudd'nhead—which there hadn't—this revelation removed that doubt for good and all. (86)

윌슨과 그의 아이러니를 터무니없다고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이십년을 얼간이라고 불려온 사람”(the man the like of us has called a pudd'nhead for more than twenty years 224)이 “이제 그 지위를 사직했네”([H]e has resigned from that position 224)라고 말하며, 이어 “얼간이 자리는 공석이 아니야—우리가 선출되지 않았나”(‘Yes, but it isn’t vacant—we’re elected.’ 224)며 세상을 바라보는 바뀐 사고의 틀을 토로한다.

한편 윌슨도 자신의 세상을 보는 사고의 틀이 달랐음을 시인하고 있다. 윌슨은 톰을 처음부터 용의 선상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는 톰이 살인할만한 위인도 못되고 드리스컬 숙부가 죽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정말 천치야! 여자라는 것만 생각하다니—여자옷을 입은 남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Idiot that I was!--Nothing but a girl would do me—a man in girl’s clothes never occurred to me. 209)고 윌슨은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좁았고 결과적으로 좁고, 편협한 생각의 틀로는

올바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월슨은 쌍둥이를 변호하면서 “우리 중 누구라도 입장이 바뀌었다면 거기 머물렀을까요?”(234)(Would any of us have remained there? 214)라고 역지사지를 말한다.

또한 루이지가 결투를 신청하고 당연히 명예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스콜 판사는 톰의 말을 믿고 그 결투가 명예롭지 않다고 거절하자, 루이지는 드리스콜 판사가 보인 톰에 대한 편애에 ‘이상한 철학’이라고 하자 월슨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젊은 부부에게 태어난 악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만, 늙은 부부가 입양한 악마는 그들에게는 천사요, 언제나 변함없이 천사로 남아 있죠.... 그건 전혀 철학이 아니랍니다—사실일 따름이죠. 그리고 뭔가 애뜻하고 아름다운 면이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아는 이처럼 늙고 자식 없는 딱한 부부가 왕왕대는 작고 무가치한 강아지 무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애처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205-6)

A devil born to a young couple is measurably recognisable by them as a devil before long, but a devil adopted by an old couple is an angel to them, and remains so, through thick and thin.... ‘It ain’t a philosophy at all—it’s a fact. And there is something pathetic and beautiful about it, too. I think there is nothing more pathetic than to see one of these poor old childless couples taking menagerie of yelping little worthless dogs to eheir hearts. (193)

월슨이 보이는 공감능력은 바로 그가 가진 세상을 보는 다양한 사고의 틀에 기인하고 이런 탓에 그는 사건의 해결자이자 배타적인 남부사회의 생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월슨의 공감능력이 트웨인의 공감능력이고 이런 사고의 틀로 트웨인은 얼간이 월슨의 인물과 환경을 작품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트웨인이 하나의 작품을 두 개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시대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새로운 사고의 틀로 바라보았다는 시각으로 『얼간이 월슨』을 읽었다. 이 작품에서 트웨인은 한 살인사건 이야기를 그가 자주 구사했던 상황 재구성했으며, 그 도구로 주인공 톰과 체임버스의 역할교환, 톰의 여성으로 사칭, 실제 쌍둥이와 두 개의 다른 사고의 틀이 역설적으로 뒤엉킨 월슨과 록새나, 집단적으로 버지나와 제일가문과 마을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트웨인은 미시시피 강 기선의 조타수로 일하면서 승객으로 보는 강과 조타수로 보는 강의 차이를 말한다.

이윽고 수면이 훌륭한 책처럼 내게 다가왔다. 훈련받지 않은 승객에게 수면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이 책을 읽지 못하는 승객들에게는 햇빛이나 구름이 그린 멋진 한 폭의 그림으로만 보이겠지만 훈련받은 눈에는 그림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만 아주 음울하고도 목숨을 내건 진지한 책만 있었을 뿐이다.(91-2)

The face of the water, in time, became a wonderful book—a book that was a dead language to the uneducated passenger.... [T]he passenger who could not read this book saw nothing but all manner of pretty pictures in it, painted by the sun and shaded by the clouds, whereas to the trained eye these were not pictures at all, but the grimmest and most dead-earnest of reading matter. (66-7)

승객으로서 트웨인과 조타수로서 트웨인은 전혀 다른 사고의 틀로 상황을 구성하고 미시시피 강을 더 이상 예전의 시적인 낭만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책으로 볼 수 없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세로 보아야만 했다. 『얼간이 월슨』에서 톰과 체임버스는 역할을 바꾸어 현실을 재구성하였고, 도슨스랜드 사람들은 월슨을 처음 본 순간 절반의 개 에피소드를 통해 월슨을 전혀 다른 틀로 보았으나, 사건 해결을 통해 그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트웨인은 자신의 이중적 사고의 틀을 작중인물들의 역할 바꾸기, 쌍둥이, 여장 남성, 양면성을 가진 인물 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측면은 매 장마다 서두에 언급한 얼간이 월슨 책력의 인용문과도 일치한다. 트웨인은 『얼간이 월슨』에서 상황재구성과 내용재구성을 통해 인간이 빚어내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지혜를 담고 있기에 독자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넓고 깊은 안목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문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가에게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요구된다. 자아와 타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은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확장적 인식은 무엇보다 인간 존재와 인간이 꾸려가는 삶에 대한 탁월한 틀이 그 바탕이다. 트웨인의 작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그에게 인간과 인간이 빚어내는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재구성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Works Cited

- Twain, Mark. *Life on the Mississippi*. Trans. Hesook Tae. Seoul: Jungmeong, 1998. Print.
[트웨인, 마크. 『미시시피강의 추억』. 태혜숙 역. 서울: 중명, 1998.]
- _____. *Life on the Mississippi*. Trans. Myongwhan Kim. Seoul: Changbi, 2018. Print.
[트웨인, 마크. 『얼간이 월슨』. 김명환 역. 서울: 창비, 2018.]
- Kim, Myongwhan. "Mark Twain's Criticism of Racism/ Modernity in *Pudd'nhead Wilson*." *Journal of English Studies in Korea*, 27 (2014): 31-57. Print.
[김명환. "얼간이 월슨의 인종주의 비판과 근대 극복의 과제." 『영미문학연구』, 27 (2014): 31-57]
- Anderson, Frederic. *Mark Twain: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rint.
- Bradbury, Malcolm. "Introduction," *Pudd'nhead Wilson*, New York: Viking Penguin Inc., 1986: 9-49. Print.
- Rohman, Chad. "A River 'Ready for Business': Life Down the Mississippi as a Main Undercurrent in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American Literary Realism*, 39, No. 3 (Spring 2007): 241-51. Print.
- Chellis, Barbara A. "Those Extraordinary Twins: Negroes and Whites," *American Quarterly*, 21 (1969): 100-112. Print.
- Cox, Jame M. *Mark Twain: The Fate of Humor*. Princeton: Princeton UP. 1966. Print.
- Gillman, Susan and Forrest G. Robinson, eds.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Race, Conflict, and Culture*. Durham: Duke UP, 1990. Print.
- Moss, Robert. "Tracing Mark Twain's Intentions: The Retreat from the Issue of Race in *Pudd'nhead Wilson*," *American Literary Realism*, 30 (Winter 1998): 43-55. Print.

- Fisher, Mark and Michael Elliot. “*Pudd’nhead Wilson*: Half a Dog is Worse than None,” *Southern Review*, 8 (1972): 533-47. Print.
- Michelson, Bruce. *Mark Twain on the Loose: A Comic Writer and the American Self*. Amherst: Univ. of Massachusetts P. 1995. Print.
- Shannon, Edward A. “Our Clothes are a Lie”: “Disguise and Christian Typology in *Pudd’nhead Wilson*,” *The Mark Twain Annual*, 7 (2009): 52-65. Print.
- Cox. Jame M. Cox, *Mark Twain: The Fate of Humor*. Princeton: Princeton UP, 1966. Print.
- Twain, Mark. *Pudd’nhead Wilson and Those Extraordinary Twins*. New York: Viking Penguin Inc., 1986. Print.
- Wigger, Ann P. “The Composition of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and *Those Extraordinary Twins*: Chronology and Development,” *Modern Philosophy*, 35 (1957-58): 182-186. Print.

김재신 (건양대학교/교수)

주소: 충남 논산시 내동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창의융합대

이메일: jason@konyang.ac.kr

논문접수일: 2020. 3. 30 / 심사완료일: 2020. 5. 13 / 게재확정일: 2020. 5. 13